

점심 Q | 아바타의 모든 것

“설리에 조승우...딱이네 딱!”

# 한국서 홍보비만 25억원 질렀네

‘싱크로율’ 90%에 도전한다. 히트작 속 캐릭터를 ‘내 맘대로 캐스팅’ 해보는 싱크로율(서로 다른 요소를 비교했을 때의 정확도) 높이에 ‘아바타’ 인물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 ‘아바타’ 한국배우 가상캐스팅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제이크 설리 vs 조승우...“멋있으니까”  
왜냐고? 멋있으니까. 안정된 삶을 버리고 연인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남자는 매력적이다. 조승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설리 역을 놓고 끝까지 경합을 벌인 조승우와 김남길. 두 훈남의 경쟁에서 조승우가 뽑힌 결정적 이유는 일찍이 ‘아바타’를 연기해 본 경험 덕분. 영화 ‘후아유’에서 조승우는 아바타로 분해 이나영과 가상현실을 거닌다.



설리 조승우

●네이티리 vs 바다...“앗 외모가...”  
그녀의 별명은 ‘아바타’. 나비족 여전사 네이티리에게 누리꾼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아바타? 아바타? 어감까지 비슷하다니... 순전히 누리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가상 캐스팅. 즉, 눈과 눈 사이가 약간 먼 두 여인의 외모적 특징을 적극 반영했다.



네이티리 바다

●그레이스 박사 vs 윤여정...“시가갓 시가갓”  
그녀들의 담배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아바타 캡슐에서 막 빠져나온 그레이스 박사가 외치는 단발성 고향은 “시가갓”. 나비족과 전쟁을 선언한 군인들에게 맞서던 박사의 또 다른 외침 역시 “시가갓”. 애연가 윤여정이 영화 ‘여배우들’에서 김옥빈에게 깨낸 결정적 한 마디는? “너 담배 화장실에서 배웠지?”.



그레이스 윤여정

●쿼리치 대령 vs 유해진 “이런 반전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마일스 쿼리치 대령은 설리에게 돈과 명예란 장밋빛 미래를 제의한다. 처음에 그는 진정한 군인의 대명사. 그런 그가 설리를 속이고 나비족을 속였다. 개성파 배우 유해진도 팬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의 연인이 김혜수일 줄이야. 믿었던 관객과 팬들에게 짹짹 ‘반전’을 안긴 쿼리치 대령과 유해진, 당선들이 진정한 싱크로율 90%다.



쿼리치 유해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Avatar)’가 한국 외화 흥행 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진은 주말을 맞아 ‘아바타’를 상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극장의 발권 창구에 모여있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 ■ 표절논란 소문과 진실 사이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86년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아래)’를 모방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아바타’의 할렐루아 산. 사진제공 | 대원C&A 홀딩스(주)와 이식세계픽처스코리아

## 아바타는 日 ‘천공의 성’ 베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아바타”는 이라크 전쟁 비판의 패러디?  
관객의 열띤 반응만큼 거기서 파생된 논란 역시 뜨겁다. ‘아바타’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치색 공방부터 스토리 유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분석은 ‘아바타’가 미국 보수주의 진영을 은근히 공격한다는 내용. LA타임스는 5일 ‘아바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을 내면에 깔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화에서 지구인들이 대체자원 얻어다움을 찾아 우주의 판도라 행성을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모습이 석유를 둘러싼 이라크 전쟁의 숨은 이유와 맞닿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송 ABC도 6일 자 인터넷판을 통해 ‘아바타’에 담긴 반전 메시지가 보수주의자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지구인들이 무기를 앞세워 토착 원주민 나비족을 대량 살상하는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영화 스토리의 유사 논쟁도 있다.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절대상’까지 등장할 정도다. 미지의 땅에 사는 원주민과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남자의 사랑이라는 열개는 영화 ‘늑대와 춤을’과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들은 ‘아바타’를 ‘판도라판 늑대와 춤을’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또 자연에 영혼이 있다는 설정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작품관과도 닮았다. ‘아바타’ 주인공 설리가 부족의 용사가 되기 위해 오르는 할렐루아산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천공의 성 라퓨타’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에 대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지난 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하야오 감독과 나는 꿈속에서 비슷한 영감을 얻은 것 같다”며 “할렐루아산의 진짜 모델은 중국의 황산”이라고 해명했다.

## ■ 1000만 관객몰이 알고보니...

버스에도 햄버거에도...아바타! 아바타! 매머드급 브랜드 제휴마케팅 생활 침투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지난 해 10월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영화계 관계자들은 김해공항에서 해운대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대형 버스의 길을 둘러싼 이미지들은 ‘아바타’의 포스터 컷과 카피들이었고 이는 이 영화의 엄청난 ‘몰락 공세’를 예상케 했다. 이제 1000만 관객 돌파를 넘보는 ‘아바타’가 한국 관객에게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 전까지 ‘아바타’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타이타닉’ 이후 1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만 알려졌다. ‘아바타’의 홍보마케팅사 영화인의 이명진 팀장은 “관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시점이던 당시부터 본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이뤄졌고”고 말했다.

그리고 12월11일 ‘아바타’가 언론 및 배급 사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다주었다. 3D로 선보인 ‘아바타’에 대한 관심은 각종 언론 리뷰 등을 통해 단번에 관객의 관심을 끌고 왔다. 이후 수입배급사와 홍보마케팅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바타’의 이미지를 노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월드 와이드 프로모션. 휴대폰, 햄버거, 카메라 등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브랜드와 제휴, ‘아바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홍보 및 마케팅 틀을 가동시켰다.

이는 전 세계 극장은 물론 안방극장까지 침투하며 관객들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주는 데 기여했다.

이명진 팀장은 “관객에게 익숙한 상품과 제휴한 광고 등 프로모션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면서 “이들 업체들에게도 세계적 흥행 기대감과 함께 하는 프로모션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제임스 캐머런, 전 세계 흥행 1위작 ‘타이타닉’의 감독이 내놓은 12년 만의 신작이란 관객의 호기심은 마케팅의 핵심이 되어주었다. 3D 영상 등 ‘아바타’가 이뤄낸 영상혁명의 성과는 그 다음이었다.

‘아바타’의 홍보마케팅에 들어간 비용은 한국에서만 최소 25억 원은 넘을 것으로 한 관계자는 귀뻘했다. 물론 그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08년 기준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10억 원 미만 영화 제외, 영화진흥위원회 자료) 45억 2000만 원 가운데 마케팅비는 14억3000만 원이었다.

팬진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순위	영화	주간관객수(명)	누적관객수(명)	개봉일
1	아바타	1,472,181	7,676,149	2009/12/17
2	전우치	956,106	4,135,942	2009/12/23
3	설복 홈즈	392,456	1,849,591	2009/12/23
4	용서는 없다	232,254	239,131	2009/01/07
5	앨빈과 슈퍼밴드2	177,359	453,750	2009/12/30
6	나인	161,956	438,546	2009/12/31
7	더 로드	71,960	72,916	2009/01/07
8	프랙 몬스터 DP ‘아르세우스 호’의 시공으로	50,064	286,811	2009/12/24
9	극장판 파워레인저 ‘렌진포스 VS 와일드스피릿	42,374	57,795	2009/01/07
10	파르나서스박사의 상상극장	26,961	456,573	2009/12/23

집계기간 : 1월 3일~1월 9일,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 최경아교수의 6색 건강요가 | 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섹스요가

### 가슴·어깨 짝 펴고 당당하게 고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원하는가? 해답은 요가이다. 당신의 자세와 얼굴표정은 당신의 모든 걸 말해준다. 요가는 당신의 첫인상을 매력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다. 남성에게도 외모가 중요한 시대이다. 입사시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면접 시험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지적이고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게다가 세련된 이미지를 원한다. 성취욕과 진취적 기상을 지닌 눈빛의 소유자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매진해야 하는 직장인들.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작년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무역수지 410억을 흑자가 가능했다. 이제 건강의 흑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면 목, 등, 허리의 전골 현상이 심화되어 상체가 앞으로 굽고 목과 어깨근육이 뭉치고 피곤하게 된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 후굴 동작을 취해보자. 밀착된 척추 마디마디를 이완시키고 경직된 허리의 피로를 해소해 주면 작업 컨디션이 쑥쑥 올라가게 된다.



1.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의자 손잡이에 올려놓고 좌우 고개운동을 한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을 바라본다. 가슴과 어깨도 최대한 확장시켜준다.

2.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천장을 바라본다. 가슴과 어깨도 최대한 확장시켜준다.

3. 양손으로 의자의 손잡이를 밀면서 발바닥으로 땅을 세게 누르는 느낌으로 일어선다.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리고 전신을 이완한다. 좌우로 고개를 돌려 목운동을 한다.

4. 최대한 가슴과 어깨를 확장하고 시선은 천장을 응시한다. 20초 정도 지킨다.

※효과: 척추 전체의 후굴을 유도해 앞으로 굽어져 있는 불균형을 회복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바퀴가 달린 의자의 경우 고정 장치를 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것.



최경아 명지대학교교수 | 국민생활요가협회회장 | MBC해설위원